

보도시점 2023. 11. 14.(화) 17:00 배포 2023. 11. 14.(화) 13:30

한중 기업과 정부의 만남과 소통의 장 열려... 민관 합동 한중 경제협력 추진

- 제1회 「한중 경제협력교류회」, 중국 창춘(長春)에서 성황리에 개최,
코로나 이후 기재부와 중국 발개위가 주관하여 개최하는 첫 현장행사로
양국 지자체들과 170여개 기업들 참여
- 주요 정책설명회, 지자체별 투자환경 및 지원제도 설명, 기업간담회 등 3개 세션
진행하고, 2개 국장급 회의 별도 개최...한중 경제장관회의 개최 및 공급망 등 논의

11.14일(화) 기획재정부와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이하 ‘발개위’)는 중국 지린성(吉林省) 창춘시(長春市)에서 제1회 「한중 경제협력교류회」(이하 ‘교류회’)를 공동으로 개최하였다.

이번 교류회는 작년 8월 개최된 「제17차 한중 경제장관회의」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허리펑 발개위 주임(何立峰, 현 중국 국무원 경제담당 부총리)간에 합의한 성과사업이자 양국 기업들이 정부 당국자들과 만남의 장을 갖고 상호 교류·협력하는 행사이다. 본 행사는 당초 작년 12월 개최키로 하였다가 중국내 코로나 재유행으로 연기되었으나, 양국 정부가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의해온 끝에 금일 개최하게 되었다.

특히 그간 우리 정부가 중요한 경제협력 파트너인 중국과의 협력 의지를 지속적으로 표명*한 것이 중국 측의 적극적인 협력을 이끌어 냄으로써, 이번 교류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었다. 정부는 이번 교류회를 시작으로 한중 경제장관회의 등 양국 경제 분야 협력을 계속해서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 ('23.5월) 4년만에 추경호 부총리 - 주한 중국대사 면담, ('23.7월) 4년만에 추경호 부총리 - 중국 재정부장 양자 면담, ('23.9월) 한덕수 총리 - 시진핑 주석 면담, ('23.10월) 중국 일대일로 포럼에 해수부 장관 참석 등

이번 행사는 주요 정책설명회, 지자체별 투자환경 및 지원제도 설명, 그리고 기업간담회 등 3가지 세션으로 구성·진행되었다. 한국측에서는 전라남도과 대구시, 코트라와 국토연구원, 그리고 현대자동차, 삼성SDS, LG화학, 포스코, CJ 등 40여개의 기업관계자가 참석하였고, 중국측에서는 지린성 부성장, 발개위 국장급 6인* 등 중앙 및 지방의 고위급 정부인사와 비야디, 알리바바 등 130여개의 기업관계자가 참여하여 이번 행사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 국제사, 외자사, 진흥사, 산업사, 고기술사 부사장, 발개위 국제협력센터 주임

민경설 대외경제국장은 개회사를 통해 한중 경제협력교류회는 “지정학적 불확실성 증대에도 불구하고 한중간 경제협력의 새로운 장을 여는 뜻깊은 행사로서, 양국간 경제협력의 핵심 통로가 되어 양국 정부와 기업, 중앙과 지방을 긴밀하게 연결해줄 동아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오늘의 논의가 “양국간 경제협력을 전례없는 수준으로 끌어올릴 혁신적인 파트너쉽, 미래 지식 교환 뿐만 아니라 양국간 및 제3국에 대한 공동투자 확대를 위한 촉매제”로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참석자들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행사에 참석한 현지 진출 우리 기업들은 그간 기업 차원에서는 중국 정부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는데, 이번 행사를 계기로 발개위 고위급을 직접 만나 소통하고 기업 애로사항을 전달할 수 있었던 것이 매우 뜻깊었다고 평가했다. 기재부는 금번 1차 회의를 시작으로 한중 경제협력 교류회를 매년 개최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우리 기업들의 중국 정부 소통 및 애로사항 전달의 통로로 지속적으로 활용해나갈 것이다.

한편, 교류회를 계기로 2개의 한중 국장급 회의도 개최하였다. 민경설 대외경제국장과 귀루이(郭銳) 발개위 국제사 부사장 간의 회의에서는 양국간 협의가 진행 중인 「제18차 한중 경제장관회의」를 조속한 시일 내에 개최하기로 합의하면서 회의 의제 및 성과사업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이와 더불어 불안정성이 높아지는 국제질서 속에서도 양국 간 공고한 경제협력관계의 유지·발전을 위해서 양국 정부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민 국장은 현지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을 전달하였고, 귀루이 부사장은 이에 깊은 관심을 보이며 동 사항의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아울러 민 국장은 「2030 세계박람회」를 한국의 부산이 유치할 수 있도록 중국 측의 관심과 지지도 당부하였다.

또한, 최재영 기획재정부 공급망기획단 부단장은 자오즈단(赵志丹) 발개위 고기술사 부사장과 공급망 현안에 대해 협의하였다. 최 부단장은 지난 8월 중국 정부의 갈륨·게르마늄에 대한 수출허가제 도입 및 금년 12.1일로 예정된 중국 흑연 수출허가제에 대한 우리정부의 입장 및 관련 업계의 우려 등을 전달하였다. 양측은 앞으로 한중 업계 간 공급망 교류와 협력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 간 긴밀한 소통 및 협의를 해나가기로 하였다.

담당 부서	대외경제국 통상조정과	책임자	과 장	최지영 (044-215-7650)
		담당자	사무관	김기홍 (zwei@korea.kr)
	경제안보공급망기획단 총괄기획과	책임자	과 장	이진민 (044-215-7870)
		담당자	사무관	장상희 (sngjang07@mofa.go.kr)

개회(축사)

- 中) 지린성 부성장
- 韓) 기재부 민경설 대외경제국장
- 中) 발개위 국제사 부사장
- 韓) 駐中 한국대사관 유복근 경제공사

세션1. 정책설명회

- 中) 발개위 외자사 부사장 - 중국 대외개방 추진 현황
- 韓) KOTRA - 한국 투자 환경 소개
- 中) 발개위 진흥사 부사장 - 낙후 산업 지역 진흥 추진 관련 정책
- 韓) 한국국토연구원 - 한중 지역개발 협력 방안
- 中) 발개위 산업사- 한중 산업협력 현황 및 발전 기회

세션2. 지자체별 투자환경 및 지원제도 설명

- 中) 지린성 발개위 부주임 - 지린성 및 대외개방 전략 현황
- 韓) 전라남도 중국사무소장 - 전라남도 투자환경 및 지원제도
- 中) 창춘 국제협력시범구 당업무위원회 서기 - 시범구 건설 상황과 중점 정책 등
- 韓) 대구광역시 원스톱기업투자지원센터장 - 투자하기 좋은 원스톱 대구

세션3. 산업간담회

- 자동차 산업
- 의료·미용 산업